



통일 20년, 독일을 가다

베를린 장벽 현지 르포

#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독일’을 잊어라”

지난 8월 29일 취재진은 독일 베를린장벽 앞에 섰다.

역사적 수명을 다한 철의 장막은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러나 독일식 통일모델은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으로 20년간 남쪽 사람들의 의식·무의식 속에 군림해왔다.

독일식 흡수통일은 과연 한반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서유상 기자 yuki@minjog21.com    사진 안준영 디자이너 ajyoung@daum.net

“왜 한국인들이 독일과 한반도를 비슷하게 보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남북과 독일 사례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게다가 지금 이대로라면 독일식 흡수통일은 한반도에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분단과 통일을 모두 경험한 독일인 알리(61)씨의 말이다. 독일 통일의 후유증은 그들만 겪는 것이 아니다. 지구 반대편의 한국인들도 수십 년째 심각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른바 ‘통일공포증’ 혹은 ‘통일무개념증’이다. 지레 겁먹고 통일을 기피하는 통일공포증도 문제지만 최악의 불치병은 ‘통일무개념증’이다. ‘통일=독일’이라는 등식이 이미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잡아 흡수통일 외에 다른 방식의 통일은 아예 개념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베를린장벽 앞에서 만난 독일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독일을 잊어라.”

## 반나절만에 완성된 베를린장벽 앞에서 생이별한 가족들

그것은 두께 16cm의 콘크리트벽에 불과했다. ‘베를린장벽’ 치고는 실망스럽기까지 했다. 1989년 망치로 장벽을 부순 베를린 시민들은 벽의 두께를 확인하고 또 한번 통곡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분단의 장벽은 분통터질 정도로 허술했던 것이다. 베를린 시내 중심가의 체크포인트 찰리(Checkpoint Charlie)는 장벽이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곳이다. 이곳은 동·서독을 잇는 국경초소로, 19년 전에는 우리의 판문점과 같은 곳이었다.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1961년 8월 13일 아침, 군인들이 몰려와 장벽을 쌓기 시작하더니 점심 무렵에 다 끝내버렸죠. 친척을 만나기 위해 잠시 동베를린으로, 서베를린



■ 체크포인트 찰리 앞에 세워진 남북정상회담의 대형 사진 앞에서 남북정상을 패러디하고 있는 올리베(왼쪽)와 올리바(오른쪽)씨. 베를린장벽 박물관 옥상에서 찍은 베를린장벽(오른쪽 위). 가운데 공간을 두고 이중장벽을 쌓았다. 베를린장벽에 관한 야외전시물을 유심히 보고 있는 관광객(오른쪽 아래).



으로 갔던 사람들은 수십 년간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베를린장벽의 '해설강사'로 나선 알리 씨의 설명이다. 함께 동행한 동독 출신의 올리바(Oliver · 39) 씨는 “이날 서베를린으로 잠깐 동생을 만나러 갔던 어머니도 허마터면 돌아오지 못할 뻔했다”고 말했다. 2차대전 패전 후 독일은 연합군에 의해 동서독으로 나뉘었지만 여전히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과 경제약화로 동독 총인구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서독으로 빠져나갔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동독 당국은 베를린 시내부터 총 155km에 달하는 장벽을 쌓기 시작했다.

바로 옆 베를린장벽 박물관의 무성영화는 그 날의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벽을 쌓는 동독군인들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당시 베

를린 시장.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려는 사람과 이들의 다리를 붙잡는 군인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동베를린의 가족을 향해 눈물 흘리며 손수건을 흔드는 여자...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마치 한편의 '컬트영화' 같았다.

상상해 보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가던 길목에 갑자기 콘크리트 벽이 등장해 수십 년간 이산가족이 돼버린 상황을. 전쟁을 겪은 한반도처럼 참혹한 분단은 아니었지만 차마 버릴 수 없는 눈 앞의 희망은 더 큰 고통으로 이들의 삶을 비틀었을 것이다.

베를린장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져갔다. 처음의 어른 키 만한 벽돌장벽과 철조망은 높이 4m의 견고한 콘크리트벽으로 바뀌었다. 장벽 근처의 건물들은 어김없이 파괴됐다. 체크포인트 찰리 앞에는 당시 폭파됐던 교회가 일부 남아 있다.

■ 체크포인트 찰리 옆에 남아있는 베를린장벽.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장벽조각을 떼어가는 바람에 심하게 훼손돼 있다.





■ 베를린장벽의 콘크리트 틈으로 바라본 모습.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이 베를린장벽 박물관이다.

장벽 뒤에는 10m 정도의 공간을 두고 다시 이중 장벽을 쌓았다. 함께 동행한 서독 출신의 울리케(Ulrike · 39) 씨는 “이 장벽은 독일 당국이 새롭게 복원한 것”이라며 “진짜배기”는 바로 옆에 있는 ‘저 벽’이라고 가리켰다. 콘크리트 안에 박힌 철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군데군데 구멍난, 안쓰러운 벽이었다. 역사적 수명을 다한 철의 장막은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롭게 서 있었다.

체크포인트 찰리에는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에 만나는 사진들이 큼직한 야외 게시판에 걸려 있다. 울리케와 울리바가 사진 앞에서 남북정상을 패러디(?)하며 신나게 악수를 해대는 통에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

이곳에 사진을 전시하며 한반도 통일을 기원했을 독일인들의 마음은 분명 고마웠다. 그러나 막상 사진을 지켜보는 기자의 심정은 복잡했다. 무너진 베를린장벽 앞에서 이제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가 하필 내 나라임을 상기하는 것은, 분명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 ‘집단 우울증’에 시달린 베를린 시민들

취재진은 베를린장벽을 따라 느리게 걷기 시작했다. 어

느 순간 장벽이 사라지고 장벽이 있던 길에 ‘Berliner Mauer(베를린장벽) 1961~1989’ 라는 글자만 선명하다.

옛 동베를린 거리에 들어서자 서베를린 지역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거리 곳곳이 넓고 어둡다. 서베를린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주의 시절의 공중목욕탕도 그대로 남아있다. 건물 벽마다 총알, 혹은 폭탄 파편에 맞은 듯한 전쟁의 상흔이 가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보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오른쪽 거리를 바라보자 말끔하게 단장한 파스텔톤 건물들과 세련된 광고판들이 두 눈을 자



■ 옛 동서독 경계의 벽들은 대부분 철거되고 장벽의 존재를 표시하는 비석만 남아있다.

극했다. 과거 서베를린 지역이다. 경계선을 밟은 채 단지 고개만 180도 돌렸을 뿐인데 둘은 전혀 딴 세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장벽이라도 있는 것일까.

현재 동베를린 지역은 도시 전체가 '공사 중'이다. 알리씨의 부인이자 이날 통역을 맡아준 김정숙 한민족유류연대 회원은 베를린 중심가인 운터 덴 린덴(Unter den Linden) 근처의 공사현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곳에 정말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는데 동독 당국이 그걸 허물어버리고 볼품 없는 시민회관을 지었어요. 그걸 지금 다시 해체하고 있는데 궁전을 복원할지 아니면 다른 건물을 새로 지을지 한참 논쟁 중입니다.”

통일된 지 20년이 다 되가는 지금, 베를린은 구 동독 지역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었다. 이는 독일이 통일 후유증에서 벗어나 점차 경제적 여유를 찾아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지금까지 서베를린 시민들은 갑작스런 통일로 인해 이중삼중의 부담을 감수해야했다. 월급 외에 서베를린 시민들만 따로 받았던 '위험수당'이 없어지고 동독을 돕기 위한 '연대금'이 새로 생겼다. 실제 수입이 20~30% 이상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20년 가까이 임금인상도 전혀 없었다. 엄청나게 뽀뽀 물가를 감안하면 그야말로 살인적인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닐 수 없다. 김정숙씨는 “3년



■ 옛 동베를린 지역의 오래된 건물에는 대부분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동독 지역은 공사중인 곳이 눈에 띄게 많다.

■ 베를린의 명소인 박물관 섬의 보데 박물관. 동독 시절 문을 닫았다가 통일 후 보수를 거쳐 지난 2006년 재개장했다.





■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 앞 풍경. 문 왼쪽 건물이 미국 대사관, 오른쪽 건물이 프랑스 대사관이다. 최근 신축했다고 한다.

전만 하더라도 베를린 시민들 표정을 보면 하나같이 '우울증 환자' 같았는데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참 걷다보니 강 건너에 아름다운 돛형 지붕을 가진 보데박물관(Bode Museum)이 보였다. 그곳이 바로 말로만 듣던 '박물관 섬'이다. 베를린 박물관 섬은 5개의 세계적인 박물관들이 나란히 있는 슈프레 강의 섬을 말한다.

알리 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됐다가 동독 시절 복구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것을 통일 이후 대대적인 보수를 거쳐 다시 개장 했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현장답사 장소는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er Tor)이다. 1989년 11월 9일 동독의 정치국원 샤브로프스키(Schabowski)가 "모든 동서 국경을 개방한다"고 밝힌 지 한 달 후인 1989년 12월 22일 새벽 0시 27분, 최초로 브란덴부르크 문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당시 30만 명에 달하는 베를린 시민들이 이곳에 모여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에서 독일 통일의 현장을 지켜보았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은 비교적 늦은 시간 때문인지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 비교적 한산했다. 독일 분단의 당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대사관이 브란덴부르크 문 양옆에 있다는 사실이 어색해서였을까. 막상 문 앞에 서니 통일의 현장이라는 역사적 감흥보다는 현실의 문제가 피부로 다가

온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은 비교적 늦은 시간 때문인지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 비교적 한산했다. 독일 분단의 당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대사관이 브란덴부르크 문 양옆에 있다는 사실이 어색해서였을까. 막상 문 앞에 서니 통일의 현장이라는 역사적 감흥보다는 현실의 문제가 피부로 다가



왔다. 이곳에서 서로 만나 얼싸안고 환호성을 보냈던 사람들은 통일 이후 자신들이 감내해야 했던 물질적·정신적 후유증을 과연 짐작이나 했을까. 만약 미리 알았다 해도 과연 그들은 그 길을 선택했을까.

현장답사를 마치자 어느덧 저녁시간이다. 일행은 모두 구 동독 지역에 있는 올리바 씨의 집으로 향했다. 한국에서 온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 그가 '요리사'를 자칭한 것이다. 알렉산더 광장(Alexander platz) 근처의 동베를린 지역은 서베를린에 비해 단조로운 아파트형 집들이 많았다. 대부분 동독 시절에 지은 집들이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낮이 익다. 자세히 보니 평양의 집들과 겉모습이 상당히 비슷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까지 북 재건에 동독이 상당한 인적·물적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다.

### “장벽이 무너지던 날, 슬픔에 하염없이 울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던 날, 우리 부부도 국경초소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독에서 서독으로 나오는 건 자유로웠지만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가는 건 여전히 여권과 돈을 요구하더군요. 할 수 없이 돌아 나오는데 서독 사람들이 우릴 보면서 박수를 쳤어요. 동독 사람들 안 거죠(웃음).”

알리 씨는 그 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통일의 기쁨은 곧 실망으로 변했다. 그는 아무나 붙잡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동베를린 사람들은 곧장 백화점으로 달려가 물건을 사는데 정신이 없었다. 그에게 통일이 중요했던 것은 통일로 인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알리 씨는 “독일 통일은 결과적으로 경제통합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일 통일에 대한 실망감은 올리바 씨도 비슷하다. 그가 17세 되던 해, 많은 동독 사람들처럼 그의 모친도 돈을 주고 서독으로 떠났다. 그러나 올리바 씨는 함께 떠나지 않았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정의롭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지켜왔던 체제가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을 목격한 그의 슬픔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장벽이 무너지던 날 하루종일 울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동독에 새로운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통일로 인해 그 꿈이 좌절돼 버렸으니까요.”

작은 출판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올리바 씨는 통일 뒤 자본주의에 적응하느라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주의에 길들여져 있던 뇌세포를 하루아침에 자본주의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부하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일찍 퇴근하겠다고 할 때 그는 여느 사장처럼 ‘노’라고 말하지 못했다. 서베를린 사람들이 동베를린 지역으로 몰려와 앓다투어 집을 살 때도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집은 개인소유가 아닌 공동소유라는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얼마 후 집값을 비롯한 동독 물가가 80% 이상 뛰는 것을 본 이후야 그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됐다.

“능력 없는 서독 사람들이 통일된 후 동독으로 와 높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순진한 동독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저도 수없이 당했죠. 남북이 독일식으로 통일되면 염려스러운 것도 바로 그런 점이에요.”

올리바 씨는 “지금 눈에 보이는 동서독 갈등은 결국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옛 동베를린 지역의 중심기였던 알렉산더 광장은 변화한 쇼핑가로 탈바꿈했다.



■ 알렉산더 광장 근처의 구 동독 주택가. 대부분 사회주의 시절에 지어진 단조로운 아파트 형태다. 집 모양이 평양의 단층 아파트와 상당히 흡사하다(왼쪽 위). 동독출신인 올리바씨는 지금도 구 동베를린 거리에 그대로 살고 있다. 올리바씨의 집 현관과 내부 모습.

“통일 이후 태어난 2세대들은 지금 우리 세대들보다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훨씬 덜하죠. 그러나 부모에게서 베를린장벽에 대해 듣고 배웠을테니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아마 3세대 이후에야 완전한 통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 전쟁 겪은 한반도에서 독일식 통일은 위험...독자노선 걸어야

그녀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독일을 통일모델로 바라보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의 한반도와 독일의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독일은 분단을 겪었지만 동독과 서독 사람들이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전쟁을 겪은 한반도는 그 점에서 확연히 다르죠. 때문에 한쪽이 다른 한쪽

에 흡수되는 독일식 통일은 위험합니다. 앞서의 모델을 따라할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해요.”

통일 전까지 지구상에서 코리아는 오직 북쪽만 있는 줄 알았던 올리바 씨도 비슷한 생각이다.

“동독이 힘들긴 했지만 지금의 북처럼 심각한 식량문제, 경제문제는 없었어요. 동서독이 통합된 이후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 사람들이 낸 막대한 연대금 덕택이었죠. 만약 남북이 동독처럼 통일한다면 과연 남북 경제가 이를 지탱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알리 씨는 통일된 이후 동독의 지배권력에 있던 사람들이 법정으로 끌려갔고 일부는 사형까지 받았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남북이 이런 예민한 문제를 큰 혼란 없이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독일이 한 순간에 통일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민간교류들이 수십년에 걸쳐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교류를 통해 밀바다에서부터 하나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해요. 남북에 비하면 독일 통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흡수통일은 한반도에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

을 야기시킬 수 있어요.”

토론이 끝나갈 무렵, 올리케 씨가 기자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고 있는 통일의 모습을 말해 달라는 것이었다. 6·15공동선언 2항의 내용을 말하면서도 스스로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분단의 철벽에 갇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각론 없는 총론을 되풀이하고 있는 남북의 처지가 답답하기만 했다.

독일 출장에서 돌아오자 각 언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병이상설을 대서특필하며 당장이라도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들은 이미 휴전선이 무력화되고 판문점을 통해 북쪽 주민들이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상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그것은 남쪽 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배웠다 하는 지식인들과 기업인들은 대부분 독일식 흡수통일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속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하는 ‘6·15식 통일’은 잠자고 있는 문서 속 단어들이일 뿐이다.

그러나 독일식 통일을 머릿속에서 싸그리 지워내지 않는 한,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 뿐이다. 독일인들의 예언대로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을 맞던가, 재앙을 피해 영원히 분단 국가로 사는 길 뿐이다. 길고도 질긴 분단의 업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어를 잊어야 한다. 가능하지도, 가능해서도 안 되는 독일식 통일과는 영원히 이별하고 6·15공동선언이 첫 삽을 뜬 ‘제3의 길’을 만드는데 집중해야만 한다. 독일어를 잊어야 한반도가 산다. 

취재후기

## 세명의 독일 친구들과 한국의 ‘남다른 인연’



■ 베를린장벽 취재에 함께 동행한 세 명의 독일인들 왼쪽부터 올리케, 올리바, 알리 씨.

이날 베를린장벽 현장답사에 기자와 동행한 독일인 세 사람은 모두 한반도와 인연이 깊다. 현재 베를린에서 태권도 도장 두 곳을 운영하는 올리케 씨는 북쪽 태권도연맹인 ITF 주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의 실력자다. 지난 1992년 태권도 대회 참가 차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녀는 독일 보쿰대학과 훔볼트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했을 정도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조예가 깊다. 베를린에서 24반무예 독일연맹 의장인 김정숙 씨를 통해 한국의 전통무예인 24반무예를 접하고 4차례나 한국을 찾아 집중 수련을 하기도 했다.

편집 디자이너인 올리바 씨 역시 남다른 한국 마니아다. 동독 시절, 남쪽보다 북을 먼저 알았다는 그는 2004년 24반무예를 접하면서 남측을 처음 방문했다. 한국사람, 한국음식, 한국노래 등 한국의 모든 것이 다 좋지만 하다는 그는 베를린 세종학교 성인반에서 우리 말을 배우기도 했다. 올리바 씨가 이날 손수 지은 쌀밥과 간장과 소금으로 맛을 낸 야채 샐러드는 가히 ‘환상적’이었다.

알리 씨는 아내 김정숙 씨를 만나면서 한국과의 뿔레야 떨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결혼하고 처가에 인사드리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이 1977년. 2주 동안이나 배를 타고 간 끝에 도착한 한국 땅에서 그가 가장 처음 읽은 단어는 ‘아이스크림’이었다. 당시 한국은 아침 6시면 확성기에서 노래가 나오고 군인들이 곳곳에서 훈련하는 ‘군사문화의 나라’였다. 이후 한국을 방문한 1987년과 2001년은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자유가 충만해 놀랄 지경이었다고, 현재 베를린에서 노숙자를 돌보는 일종의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역사와 사회문제에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자상하게 설명 해주었던 그는 완벽한 베를린 가이드였다.